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7.29~2016.8.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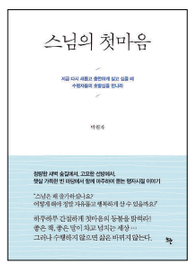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알기쉬운 쑥쑥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4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5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8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원영	문예출판사
9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10	이뭐꼬-마음에 새겨듣는 성철 큰스님의 말씀	퇴옹 성철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출가자 대표적 삶의 태도… 지극한 마음과 정성

스님의 첫마음

박원자 지음 | 뜨란 펴냄 | 1만 5천원





저자인 박원자 작가

48가지 초발심 풍경과 구도여정 소개
초발심 수행자 화두… 참회와 하심
1백년 한국 불교 수행사도 수록돼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지만, 그만큼 힘든 순간은 아마도 처음 무엇을 하려는 순간일 것이다. 그때 마음 먹은 '첫마음' 즉 초발심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신선하고 아름답다. 조계종 종정, 총림의 방장, 승가대학 학장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한국 불교의 구심점 같은 선지식들에게도 그 첫마음을 낼때가 분명이 존재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다. 그 시절 그 선지식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 책에 소개된 이들의 초발심 풍경은 다채롭고 감동적이다. 우선은 감히 흉내 내기조차 힘든 치열하고 지난한 수행 과정이 단연 눈에 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법전 스님은 한 겨울 찬밥 한 덩이에 김치 몇쪽 올려놓은 채 끼니를 해결하며 좌복 위에서 죽을 각오로 정진한 열정적 초발심 시절을 들려준다. 해인사 금강굴 불필 스님은 3년 결사를 끝내자마자 또다시 의자도 이불도 없이 100일 동안 서서 살다시피 하며 참선 수행한 경험을 회고한다. 이외에도 백만 배 절을 올리고, 하루 한 끼 공양과 장좌불와로 수행하며 촌음을 아껴 깨달음을 구한 이야기들도 소개됐다. 극도의 용맹정진 끝에 이들이 얻은 결과는 같다. 두려움도 걸림도 없는 완전한 자유였다.

수행자들이 초발심 시절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참회와 하심이다. 알게 모르게 형성된 업과 아만심을 버려야 나와 세상을 바르게 보고 흔들림없이 구도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절에 두고 간 할머니가 미워 날마다 눈물을 흘린 관후 스님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깊은 참회를 올렸다. 그리고 깨닫는다. 남에게 상처주지 말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어려운 행자시절을 6년이나 보낸 석주 스님.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 인욕보살로 불린 철산 스님. 병마를 극복한 후 참회와 하심만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았다고 고백한 법의 스님. 이들의 이야기는 나를 내세우기 급급한 이 시대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수행자의 대표적인 삶의 태도는 '정성'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사람이든 미물이든 공부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다.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 명성 스님은 하나의 경전을 삼천 번이나 읽으며,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화두를 들고, 밥을 짓고 나무를 하고, 스승을 모시거나 불사를 할 때도 스님들은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기울인다.

제자를 보살피는 스승의 관심은 부모 사랑 못지 않게 뭉클하다. 병약한 제자를 위해 손수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추운 겨울밤이면 어린 제자를 방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요를 내준다. 제자가 물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대답을 해주고, 참기름 한 방울도 아껴쓰라고 호된 꾸중을 내리고는 얼마 뒤 스무 병이 넘는 기름병을 가져다 놓기도 한다.

〈스님의 첫마음〉을 읽다 보면, 출가자로 사는 기쁨이 그 어떤 세속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스님들은 비록 고된 절집 생활에 몸이 고되고 잠이 부족해도 출가자가 된 기쁨에 마음만은 더없이 행복했다며 즐겁게 회고한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막 출가한 행자의 신분으로 여러 스님들 틈에 앉아 화엄경을 공부한 그 시절의 환희로움을 잊지 못한다. 출가자로 사는 것이 마냥 행복했다는 일진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은 함박꽃 같은 웃음이 멈춰지지 않아 계를 받던 날 "너무 웃지 마라"는 경책을 받았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도 하루라도 먼저 출가자로 살고 싶어 코앞에 집이 있는데도 절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녔다며 슬며시 웃음 짓는다. 절에서 사는 게 좋아 자신을 데리러 온 부모님을 피해 도망을 가고, 몸 힘든 것보다 "그렇게 살 거면 절에서 떠나라."는 말이 가장 무서웠다는 스님도 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바로 우리들 내면에 첫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 자기 삶의 수행자가 되어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가에는 "삼 일 동안 마음 닦는 것은 천 년의 보배요, 백 년 물질을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 티끌"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하루 종일 남의 보물을 세고 있어도 나에게는 반 푼어치도 안 들어온다."는 화엄경 구절도 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수행과 체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에 담긴 마흔여덟 가지 초발심 풍경과 치열한 구도 여정은 그대로가 살아 숨 쉬는 법문과 같다. 게으르고 무지한 영혼에 밝은 등불이 되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스승이다. 이 책에는 한국 불교 백년사가 녹아 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동안의 한국 불교 수행사, 절집의 풍속과 수행 문화, 솔직 담백한 일상생활, 고승들의 수행법 등이 풍성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노스님들의 회고를 통해 만암, 한암, 금오, 청담, 성철, 해안, 청화, 일타, 동산 스님 등 한국 불교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선지식들의 언행과 수행담이 흥미롭게 되살아나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저자는 20대에 불교에 입문한 뒤 25년 동안 글쓰기와 수행을 함께한 불교전문작가이다. 그중 10여 년 이상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스님들의 초발심 시절을 인터뷰해 월간 〈해인〉에 기사를 연재했다. 쉽게 듣지 못할 출가자의 내밀하고 실제적인 삶의 풍경에 독자들은 뜨거운 애정을 쏟아냈다. 출가를 꿈꾸다가 실제로 입산한 예도 있고, 노스님의 어린 시절에 눈시울을 붉혔다는 수녀님도 있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교수의 낭독으로 강의실이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큰 관심 속에 연재된 1백여 명의 행자시절을 모아 십수 년 전 처음 책으로 펴냈다. 그동안 여러 스님들이 자신의 육성을 남긴 채 안타깝게 세연을 다했고, 그때 만난 중진 스님들은 원로 스님들이 되었다. 출가의 환희를 차분하게 들려주었던 젊은 스님들은 이제 한국 불교계의 중추가 되어 선원장으로, 승가대학장으로, 현대적인 감각의 주지 스님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약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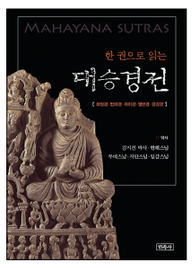
저자는 이전 원고를 꺼내 꼼꼼히 손보고,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금강굴 불필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등 몇몇 스님들을 추가로 인터뷰하여 새롭게 책을 구성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 말미에 인물 및 용어 설명도 덧붙였다. 이렇게 먼저 48분의 이야기를 개정증보판으로 선보이고, 나머지 분들의 출가 수행담도 곧이어 출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대승 불교의 사상과 철학 한권에

한 권으로 읽는 대승경전

역자/김지견 박사, 현해 · 무비 · 지안 · 일감 스님
민족사 펴냄 | 2만 5천원



대승경전은 기원을 전후해 반야경을 시작으로 많은 경전이 성립됐다. 그 가운데서도 대승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담은 대표적 경전이 바로 이 책에 수록된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열반경〉 〈금강경〉이다. 대승경전은 성립 시기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눈다. 용수 이전의 대승경전을 초기 대승경전, 그 이후 세친까지를 중기 대승경전, 또 그 이후 밀교의 성립까지를 후기 대승경전이라고 한다.

초기에 성립된 대승경전으로는 〈육바라밀경〉 〈보살장경〉 〈아촉불국경〉 〈반야삼매경〉 〈수능엄삼매경〉 〈반야경〉 〈화엄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법화경〉 등이 있고, 중기 대승경전으로는 〈대방등여래장경〉 〈유마경〉 〈승만경〉 〈대반열반경〉 〈해심밀경〉 〈능가경〉 〈금광명경〉 등이 있으며, 후기 대승경전으로는 〈대일경〉 〈금강정경〉 등이 있다. 후기 대승경전은 주로 밀교관계 경전이 많다.

이 책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대승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열반경〉 〈금강경〉을 한 권 속에 묶었다. 여기에 수록된 대승경전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불교서는 대단히 중시하며, 사상적 바탕이 된다. 특히 중국, 한국 불교도들에게 화엄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은 반세기 전 아함경이 알려지기 전만 해도 유일한 경전이었다. 또한 이 경전들은 한국불교도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깨달음의 세계를 극명하게 묘사하면서, 그러한 세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보살의 수행단계나 구법(求法)의 이야기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이사무애(理事無碍)'를 넘어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계관'은 오늘날 현대사조의 갖가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철학이다.

〈유마경〉은 많은 불제자에게 공(空)과 불이(不二)의 진리를 설한다. 다양한 각도서 공과 불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법문을 구하는 보살의 존재방식을 설한다. 특히 62가지의 사견(邪見)이 곧 진리를 깨닫는 바탕이 되며,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논리는 역설적인 논법을 통해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뒤집으면 그것이 곧 진리요, 극락이라는 것이다.

〈법화경〉은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다. 중생들을 최고의 진리인 '일불승'으로 이끌기 위해 먼저 방편으로 삼승(三乘 : 성문, 연각, 보살)을 설한 다음에 그들에게 대승의 가르침인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을 설한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처음으로 '불타, 곧 여래는 멸(滅)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불신상주설(佛身常住說)'을 설하고 있다. 특히 절묘한 비유와 방편으로써, 모든 중생을 최고의 진리인 '일승(一乘)' '일불승(一佛乘)'으로 안내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법화경〉에 의하면, 붓다는 원래 먼 옛날에 도(道)를 이루어 무한한 수명을 얻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붓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과 같은 모습, 곧 입멸(죽음)을 맞이하는 현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자비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열반경〉은 '일체중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성, 여래장을 갖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설한다. 불성, 여래장은 동의어인데 곧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 부처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 그 마음과 인성 속에 불성의 인자(因子)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부처'라는 선언으로써 평등사상이자, 중생의 인격에 대한 존중인 동시에 무한한 희망을 주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경전이다. 〈열반경〉의 대표적 사상이 바로 여래장사상과 불성사상이다.

〈금강경〉은 공(空)사상을 설한 경전이다. 일체는 공하여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지 말라,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고정적인 가치관이나 집착을 갖게 되면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사상은 초기에 성립한 금강경 등 〈반야경(般若經)〉에 나타난다. 그들은 붓다의 참 모습을, 불상이나 육체적인 모습에서 찾지 않고 '붓다의 지혜가 곧 불(佛)'이라고 확신했다. 반야지혜가 깨달음의 목표였다. 그래서 지혜(般若婆羅蜜)를 강조했는데, 이 지혜의 획득이야말로 보살, 곧 대승의 수행자가 터득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했다. 이 지혜에 의해 파악된 세계의 존재방식을 '공(空)'이라고 불렀다. '대승(大乘)' 또는 '대승불교'란 '큰 탈 것(큰 가르침)' '뛰어난 탈 것(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곧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며, 그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중생들을 미혹의 세계로부터 깨달음의 세계로 실어간다는 의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족첸(대원만) 수행의 안내서!



아로 예세 중내의 족첸 수행 지침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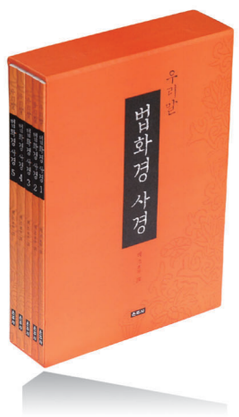
10세기 티벳불교의 위대한 성취자이자 스승인 아로 예세 중내의 핵심 가르침!

티벳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인 족첸 수행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음의 본성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홉 단계의 수행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 켄뽀 체왕 된걀 린포체 저 / 고수연 옮김 / 국판 / 256쪽 / 값 14,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